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3년 7월 11일(화)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뉴스와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7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내용은 대전뉴스에서 공문을 발송해 접수 받았으며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내용을 을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뉴스는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점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과 같은 기준으로 완료, 이행 중, 미 이행으로 세 분류로 공약 이행도를 확인 했다.

먼저 대덕구 박영순 의원의 공약은 31건이다. 이행 0건, 이행 중 15건, 미 이행 16건으로 이행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 박영순 의원실에서도 완료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 대형사업의 특성상 진척도가 늦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긴 시간 준비해야 할 공약이다.

동구 장철민 의원의 공약은 65건이다. 이 중 이행 14개, 이행 중 17개, 미이행 34개로 21%의 이행률을 보여줬다. 장철민 의원실에서는 대전 동구의료원 등 건립을 완료로 표시했지만, 대전 의료원은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재구역의 신속한 도시재생 진행 등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이다.이에 해당 사업 등은 완료가 아닌 이행 중 등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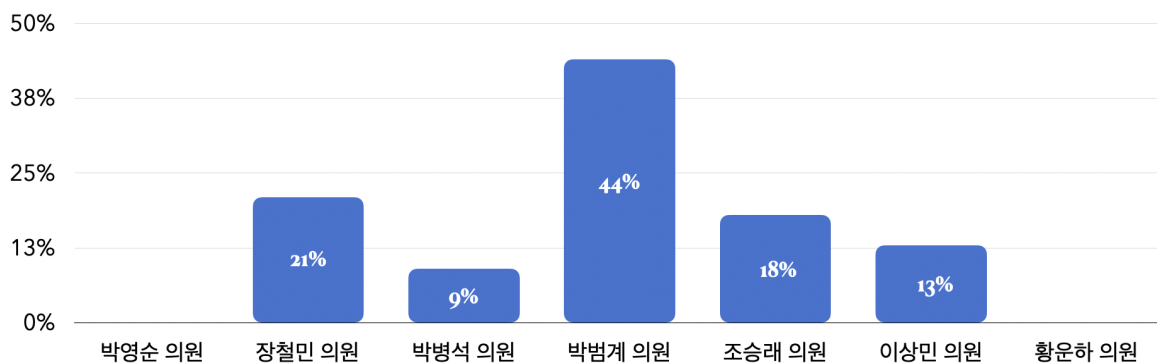
서구 갑 지역구 박병석 의원은 32건의 공약이다. 이행 3건, 이행 중 15건, 미 이행 14건으로 9%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 됐지만, 월 법안 소위 3회 이상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제시한 일하는 국회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구 을 지역구 박범계 의원의 공약은 34건이다. 이행 15건, 이행중 14건, 미 이행 5건으로 44%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미 이행된 공약으로는 트램 2호선 공약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 등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미 이행으로 판단하였다.

유성 갑 조승래 의원의 공약은 3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16건, 미 이행 11건으로 18%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입법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윤리 의무 강화 등은 논의되지 않거나, 진척이 더더 미 이행으로 판단했다.

유성 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4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7건, 미 이행 37건으로 13%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조속 이전 및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등은 대규모 사업이고, 여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중으로 판단하였다.

중구 황운하 의원의 공약은 25개다. 이행 0건, 이행중 9건, 미 이행 16건으로 이행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중구청사를 고밀도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 서남부터미널을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 하는 사업 또한 지역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미 이행으로 판단하였다.



-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표 -

2022년 KBS가 조사한 21대 국회의원 임기 2년 차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은 27%였다. 이번에 조사한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은 16%로 국회 전체 평균보다도 낮다. 공약을 단순 이행률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임기 내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전체 공약을 살펴 봤을 때 국가 전체에 대한 공약은 빈약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263개 중 33개, 약 13%의 비율이다. 공약이 지역에 몰려있고 세분화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맞는 공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다. 하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공약은 부실했다.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263개 중 7개에 불과했다. 이는 약 2%에

불과한 비율이다. 이는 공약이 재정, 건설 사업에 치중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입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유권자에게 약속 한 공약을 지키고, 이행 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이후 이행 계획을 밝히고,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 하길 바란다.

2023.7.1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